

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 교육감·구청장 >

광주시교육감 안순일·이정재 박빙 전남도교육감 김장환 선두 유지

광주·전남 교육계를 이끌 시·도 교육감이 올해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만 정당 공천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져 '민주당 기호(2번)'를 뽑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낼 교육계 수장을 뽑는 만큼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 교육공약과 인물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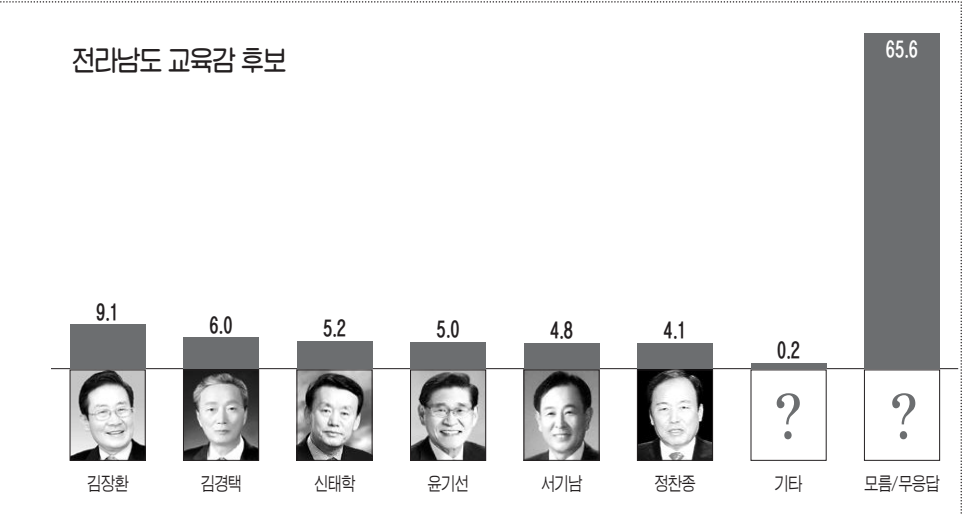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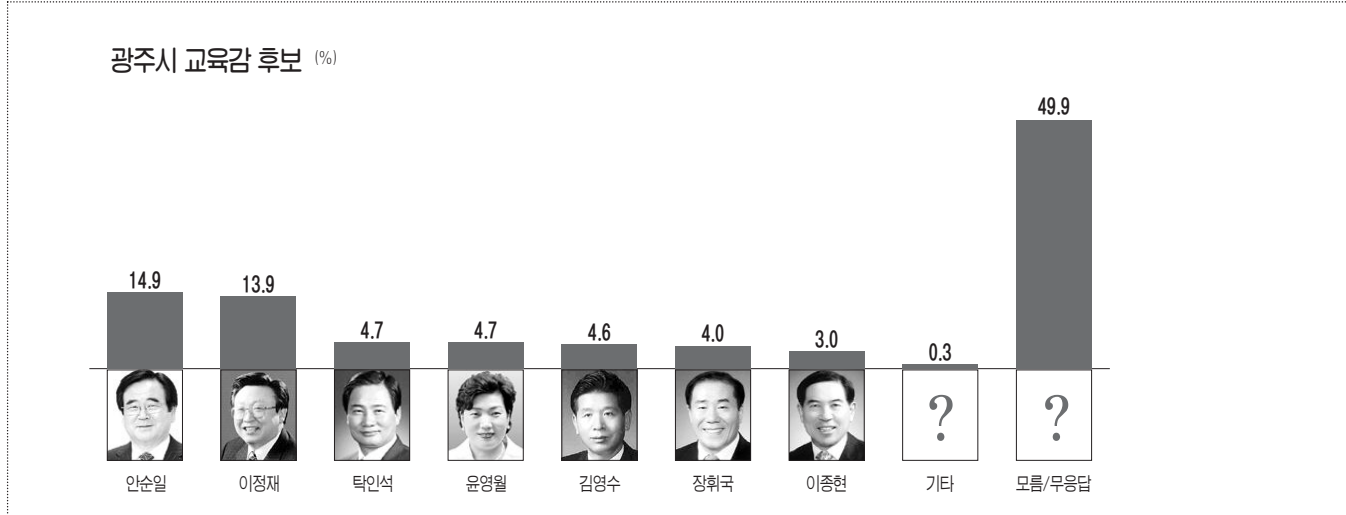
광주시교육감 지지도

광주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순일 현 교육감(14.9%)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13.9%)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탁인석 전 광주대 교수(4.7%)와 윤영일 광주예교 교장(4.7%)이 뒤를 이었고,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장(4.6%)과 시민후보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4.0%) 순이었다. 이종현 무등중 교장은 3.0%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실시했던 2010년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해선 안순일 현 교육감과 이정재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1.6%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와 시교육감 후보 지지도의 교차분석에서는 강운태·박광태·



강운태·박광태 시장후보 지지층, 현직 안순일 후보 선호

전남 응답자 중 66% "잘 모르겠다" 관심 좀처럼 안올라

양형일 시장 후보 지지층 모두가 각 19.2%, 21.3%, 19.9%로 안순일 현 교육감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또한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의 지지층은 이정재 전 총장을 27.7% 지지한 반면 안 교육감에 대해선 1.4%를 지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19~29세와 50대 이상은 안 교육감을, 30~40대는 이정재 전 총

장을 높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지지도에선 동·서·광산구에서 안 교육감을, 남·북구에선 이 전 총장을 높게 지지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답변이 49.9%로 나타나 이후 선거과정에서 부동층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감 지지도

전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이 9.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6.0%,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5.2%,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5.0%, 서기남 전남도

교육위원 4.8%, 정찬종 전 무안교육장 4.1% 순이었다.

지난해 실시했던 2010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해선 김장환 전 교육감의 지지율이 1.0%포인트 감소했으며, 당시 지지를 2위였던 신태학 후보는 2.0% 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새롭게 후보군에 들어온 김경택 총장은 6.0%로 신태학 후보를 밀어내고 2위에 올라섰다.

전남도지사 후보 지지도와 교차분석에서는 박준영·이석형·주승용 후보 지지층 모두가 각 14.3%, 13.2%, 13.4%로 김장환 전 교육감을 가장 높게 지지했다.

거주지별로는 김장환 전 교육감이 목포(15.5%), 나주(11.5%), 광양(9.1%), 담양(10%), 장성(9.0%), 화순(12.2%), 장흥(10.9%), 강진(13.9%), 완도(9.9%), 해남(12.1%)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며, 김경택 총장은 영암(11.8%),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은 여수(8.1%), 정찬종 전 무안교육장은 무안(15.8%)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김 전 교육감이 학생(18.7%), 회사원(13.0%), 농·임·어업(7.1%)에서, 김경택 총장은 자영업(10.4%)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김 전 교육감을 지지했으며, 특히 19~29세에서 15.2%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하지만 지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5.6%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교육감 후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청장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민들의 지지사항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유태명 현 동구청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3선에 도전하는 유 구청장이 29.8%로 30%대를 육박했다. 지난 신년 조사(23.9%)에 비해 5.9% 포인트 지지세를 늘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태명 청장 지지율 갈수록 상승세

재선을 하는 동안 무리없는 구정운영과 탄탄한 조직력, 현직 프리미엄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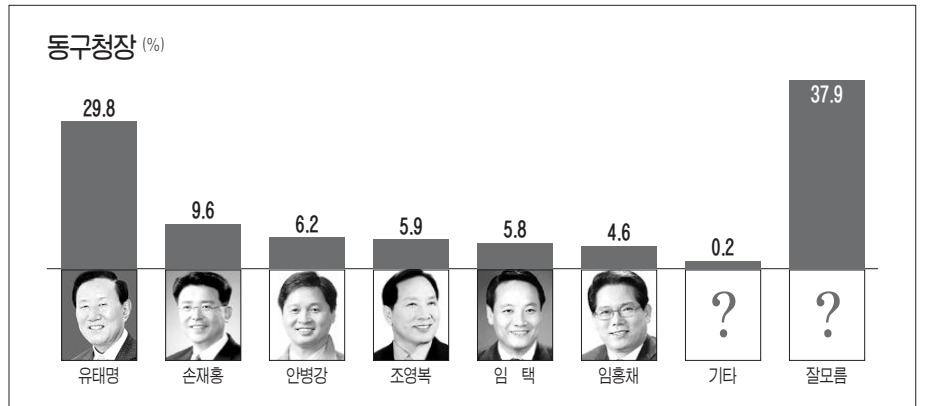
유 구청장은 성·연령·학력·직업·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가장 많은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들

의 지지가 36.3%에 달했다. 재선의 손재훈 광주시의원이 9.6%로 2위를 달렸으나, 유 구청장에 무려 20.25%포인트나 뒤처졌다. 하지만 8년 간의 의정활동에서 최우수 의원 상을 받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토대로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민노당 안병강 전 보건의료노동조합장 6.2%,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 5.9%, 임택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회 부위원장 5.8%, 임홍준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4.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잘 모르거나 대답하지 않은 경우 등 부동층이 37.9%나 됐다. 민주당 경선 등을 거치면서 이들 부동층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흡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서구청장

전·현직 구청장의 가상대결에서 현직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전주언 현 구청장이 35.0%의 지지도를 기록한 데 반해 김종식 전 구청장은 13.2%에 그쳤다. 21.8%포인트 차이다. 잘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이 아직 37.1%나 되지만, 초반 레이스에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여 향후 얼마

전주언 청장 압도적 우위... 부동층 37%

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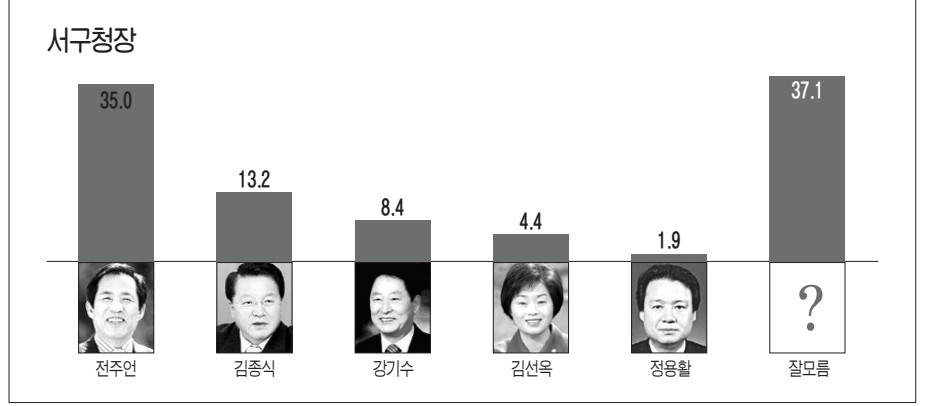
전 구청장의 압도적 우위는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종식 전 구청장도 조직력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전주언 구청장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고르게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남성(41.0%), 50대(52.5%), 자영업 종사자(49.5%) 등에서 인기가 좋았다. 김종식 전 구청장은 고졸(23.4%)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 강기수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8.4%로 약진했다. 광주시내 유일한 여성 구청장 도전자인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은 4.4%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다크호스로 떠오를 잠재력이 충분한 후보다. 정용환 한나라당 서구 당협위원장은 1.9%에 그쳤다.



광주 남구청장

대표적인 후보 난립 지역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다른 복잡한 곳으로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공천이 검토될 정도다. 강운태 의원이나, 이윤정 지역위원장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선과정에서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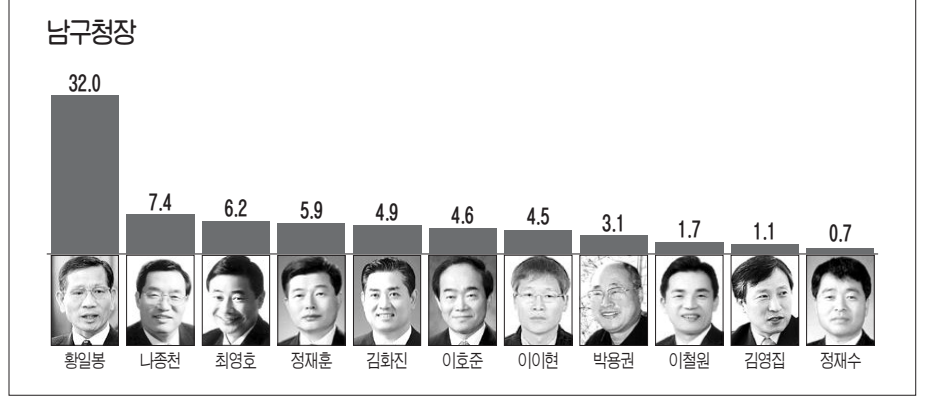
황 청장 강세 속 강운태系 단일화 주목

황일봉 현 구청장의 강세가 도드라진다. 지난 연말 조사에서와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 강운태 의원 등과의 직간접적인 인연을 입지자들의 직함에서 배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종국 강운태 의원 보좌

관(지난 신년조사 1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대거 출마한 강운태 의원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관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황 구청장이 32.2%로 2위인 나중천 광주

시의원(7.4%)보다 24.6% 포인트 앞서갔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최영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6.2%를 기록했다. 정재훈 동아병원 대표원장 5.9%, 김화진 전 남구청장 후보 4.9%, 이호준 전 남구 부구청장 4.6% 순이었다. 이이현 민노당 남구위원회위원장(4.5%), 박용권 전 남구청장(3.1%), 이철원 광주시의원(1.7%),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1.1%) 등도 이름을 올렸다. 부동층은 27.7%다.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 현 구청장이 압도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민선 4기에 이은 재대결이다. 아직은 송광운 구청장이 42.7%로 이형석 전 비서관의 지지도 18.2%보다 24.5%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운 청장 독주 속 이형석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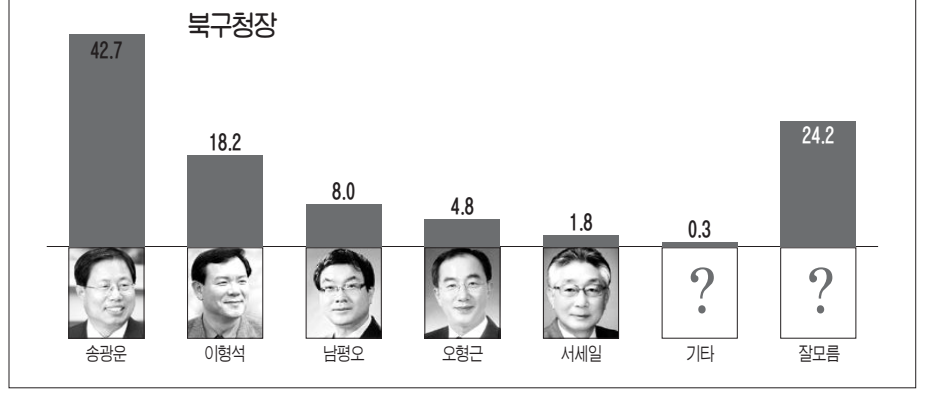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연말 조사에서 남평오 전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은 3위였으나, 이번에는 2위로 올라섰다. 남평오 전 정책보좌관은 8.0%를 기록했다. 남 보좌관은 지난번 조사에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보좌관' 직함이었으나, 이번에는

본인 이름 외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김근태'를 빼고 조사가 이뤄졌다.

재선을 노리는 '행정 전문가' 송광운 구청장에 '40대 젊은 피'인 이형석 전 비서관·남평오 전 보좌관 등이 앞서거나 뒤처거나 추

격하는 형국이다. 송 청장이 행정 관료로서, 이형석 전 비서관 등이 노동운동이나 재야에서 경력을 쌓은 점이 대비된다. 민주당 소속 3인이 '1강 2중'의 각축을 벌이는 구도에서 국회의원이 2명인 지역구라는 점이 민주당 공천 과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오형근 전 성형외과원장 4.8%, 서세일 한나라당 북구당협위원장 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0.3%, 잘 모름/무응답의 부동층은 24.2%였다.



광주 광산구청장

전갑길 현 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빈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현재까지는 송병태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도가 단연 앞선다. 25.9%로 2위인 유재신 광주시의원(8.1%)보다 17.8%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송병태 전 구청장은 특히 남성(31.7%)들의 지지가 돋보인

송병태 前 청장 1위...민주당 공천 관심

다.

다음으로, 민형배 전 청와대비서관 5.7%,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5.3%, 이정남 광주시의원 4.4%, 이정일 전 서구청장 4.3% 순이었다.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3.9%), 장원섭 도청원형보존대책위 상환실장(3.4%), 김종오 전 SK상무(2.4%)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종오 전 SK상무는 지난번에 '김대중 평화센터위원' 직함으로 조사돼 18.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국민참여당인 송 전 구청장과 본선에서 맞대결할 지 주목

된다. 송 전 구청장은 민선 3기에 다져진 튼튼한 조직력과 대중 친화력이 강점이다. 오랜 기간 행정경험도 다른 후보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유재신 광주시의원, 민형배 전 비서관 등도 젊은 패기로 대중을 파고 들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관련 포인트는 과연 민주당 대 국민참여당의 대결 구도에서 누가 이기느냐다.

다.

다음으로, 민형배 전 청와대비서관 5.7%,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5.3%, 이정남 광주시의원 4.4%, 이정일 전 서구청장 4.3% 순이었다.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3.9%), 장원섭 도청원형보존대책위 상환실장(3.4%), 김종오 전 SK상무(2.4%)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종오 전 SK상무는 지난번에 '김대중 평화센터위원' 직함으로 조사돼 18.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국민참여당인 송 전 구청장과 본선에서 맞대결할 지 주목

